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논의

임실 개최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서...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등도 의견 교환

전북도 시장·군수가 대한민국 치즈의 본고장인 임실군에 모였다. 24일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는 24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호에서 도내 14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1차년도 제5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추진사항과 각 시군별 주요안건 및 홍보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임실군 주요 현장을 견학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는 "치즈의 본고장이 임실에서 시장군수협의회를 가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이 자리가 도내 시장군수님이 한자리에 모여 전라북도도와 시군발전을 논의

하고, 상상발전권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군별 주요안건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직접 참여 ▲사회복무요원 소요경비 국고지원과 ▲정부 재정분권에 따른 도시공간 재정격차 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 지원 강화 ▲후계 농업인 육성 및 귀농귀촌 농업창업자금 상환조건 완화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시행령 개정 ▲국도 19호(안성~적상) 확장사업 ▲전북 농업농촌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도비 상향조정 ▲

보훈수당 지원내역 일원화 등 지자체별 안전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지자체별 상호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협조논의도 이뤄졌다. 전주 특례시 지정 등 현안사업과 군산 풍당보리 축제, 남원 춘향제, 정읍 드론 페스티벌, 완주 소싸움대회, 무주 산골영화제, 임실 의경문화제, 고창 청보리밭축제, 부안 마실축제 등 지역별 축제 홍보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추진사항인 풀뿌리 자치분권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발표, 강원도 산불피해 재난구호 지원 등의 내용도 진행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금돼지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도약

금돼지그린홈센터 준공식

순창군 적성면 금돼지권역이 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과 함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순창군은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금돼지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4일 순창 적성면 관평마을에 조성한 금돼지그린홈센터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및 사회단체장,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금돼지권역의 발전을 기원했다.

금돼지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순창 적성면 섬진강과 체계산 등 우수한 자연 자원이 위치한 적성 태자마을과 관평마을을 중심으로 하며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32억 8천 6백 만원을 투입해 추진했다.

이외에도 금돼지권역은 지난 3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고시되어 금돼지그린홈센터에 조성된 숙박시설, 체



24일 순창군 적성면 관평마을에 조성한 금돼지그린홈센터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협장,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농산물수확, 섬진강가누체험 등 각종 체험 및 숙박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만큼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이바지 할 전망이다.

더욱이 체계산을 잇는 출렁다리가 하반기에 완공을 앞두고 있어 금돼지권역 활성화에 호재로 작용될 예정이

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금돼지권역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금돼지그린홈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도농교류체험 및 숙박 등 권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내달 8~12일 춘향사랑 가족 힐링 걷기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개최하는 제89회 춘향제를 맞아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앞에서 '춘향사랑 가족 힐링걷기'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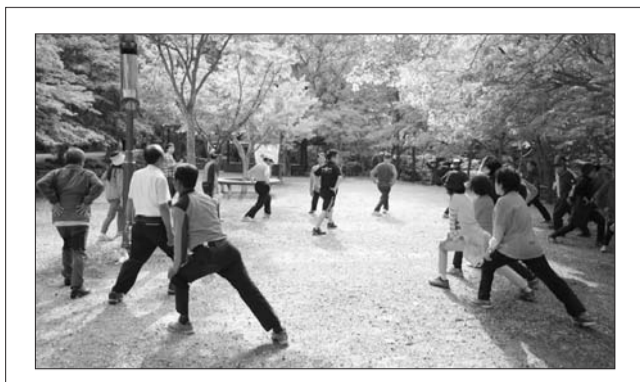
이날 행사는 9시 30분부터 현장 접수 받으며, 남원시민, 관광객 등 누

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심수정 앞에서 출발해 동림교와 승사교를 건너 다시 심수정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아름다운 요천변을(약 4km) 가족과 함께 걸으며 춘향사랑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춘향이와 함께 풍선에 날려 보내는 소원기원 행사가 진행되고, 완주자 전

원에게는 기념품 증정과 경품추첨행사 등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한편 이순례 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걷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유도하는 등 규칙적인 신체활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당뇨치휴(休) 프로젝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순창군, 29일부터 '당뇨치휴(休) 프로젝트'

웰빙과 힐링을 넘어 치유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순창군이 당뇨치휴(休) 프로젝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초먹거리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의 저자 이계호 교수와 함께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5박 6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최근 건강장수연구소 쉼랜드 내 15동의 황토 방갈로가 준공됨에 따라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프로젝트는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장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체득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과 힐링·교육·치유·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연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태초먹거리와 협력해 진행될 이

번 프로그램은 SD메디칼의 당화혈색소 검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장내 미생물 검사, NNB의 나노버블수, 혈당 및 인바디 검사 등 종합적인 임상검사와 관찰을 통해 효과성 분석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휴과 식자재, 사람은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는 이계호 박사의 이론을 토대로 좋은 휴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가지고 화학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까니벌 색다른 먹거리가 참가자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몸을 일깨울 것이다.

또한 순창군 발효미생물진흥원에서 개발한 청국장을 활용한 면역력 강화 음식도 선보인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이용호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이환주 남원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은 24일 남원시장실에서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운봉읍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에 따른 대안 방안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리산권육아종합지원센터추진 ▲금강지구와 양가지구 다목적 농촌융복합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지리산 친환경전차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간담회에는 김동규 부시장과 황의훈 총무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영근 기획실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지역 현안해결과 정책공조에 뜻을 모았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시 현안문제 해결과 주요사업들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속적인 육아종합 지원센터추진 ▲금강지구와 양가지구 다목적 농촌융복합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지리산 친환경전차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완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옥)은 안전사각지대 전수점검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한 산림분야 안전한국대진단을 완료했다.

이번 진단은 재발 가능성이 있는 산사태 발생지와 입도시설, 산불소화시설 등 총 9개 분야 77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정밀점검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민간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추진되었다.

점검 결과 배수로 및 유목제거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처리 완료하였다.

보수 보장 대상지는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보완할 계획이다.

서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번기 공동급식

20일 추가 지원 밝혀

남원시는 농번기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마을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을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도 협력사업인 공동급식지원사업을 올해 1억3,4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1개 마을에서 올해 28개 마을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급식일을 40일에서 시비를 투입해 20일을 추가 지원해 총 60일 동안 공동급식 사업을 지원한다.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은 마을주민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함으로써 가구별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일손을 영농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4번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운봉소식마을을 순원철 이장은 "부족한 농촌일손을 덜어 주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준우 농정과장은 "시에서는 농업인의 복지를 더욱 향상하기 위해 올해 농정과에 농업인복지팀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화된 농업인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